

#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흙살림

바보는 계산할 줄 모릅니다. 바보는 거짓말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하고 속일 생각조차 없습니다. 흙살림이 걸어온 유기농이라는 길은 바보와 닮았습니다. 이익을 따지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자 23년을 우직하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유기농이 가짜라고, 농약투성이라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 갖고 있는 건강·생태·공정·배려라는 철학 없이 돈을 좇아 뛰어든 부나방같은 일부 인증단체와 유통회사, 농민들이 흙탕물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흙탕물은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가라앉습니다. 이번 공중파 방송이 내보낸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이 이런 흙탕물을 가라앉혀줄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흙살림은 23년 전 충북 괴산에서 미생물 연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친환경 농업은 걸음마 단계라 일본 것을 배우고 수입해오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흙살림은 우리 풍토와 땅에 맞는 미생물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의 진짜 의미는 우리 생태와 환경을 살리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미생물 연구 덕분에 우리 땅에서 유기농이 가능한 퇴비와 생육자재, 방제·방충약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농가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흙살림은 민간기관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분석기와 이화학분석기, 토양 분석기 등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키고, 지속시키기 위해 기계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살림은 잔류농약분석기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흙살림은 토종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토종은 우리 민족 5,000년의 맥이며, 유기농의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종연구소를 통해 1500여 종의 토종을 수집·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 하지만 우리 전통을 지켜내고 유기농을 지속시키기 위한 토종 지킴이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흙살림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친환경 유기농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서울시 친환경 급식과 꾸러미, 우체국 쇼핑, 할인마트 등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기농을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흙살림 회원 농가가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흙살림은 이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물론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엔 망설일 수 없습니다. 주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를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공정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KBS와의 면담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이태근 회장(가운데) 모습.

**KBS파노라마 편파방송 규탄대회**  
"친환경 유기농업 공정하게 다루라" - 7면

---

**"KBS취재는 '유기농 죽이기' 보도였다"**  
유기농업 종사자·생산자 긴급 좌담회 - 8·9면

---

**흙살림, 정밀 잔류농약 분석 가능** - 5면

---

**유기농은 전 국민의 희망이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 전망대 - 7면

**흙살림 도서 할인판매**

미국의 유기농업을 꽃피운 로데일의 역사를 우리나라 유기농업박사 1호인 최병철 박사가 공들여 번역했습니다. 농업의 본질은 생명이며, 그 근원은 흙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흙살림 회원분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Pay Dirt (생명농법 원리) | 농업사전 | 흙과 건강**  
각 권 정가 20,000원 → 13,000원 (택배비 포함)  
입금처: 농협 323-01-059315 예금주: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흙살림연구소 유기농업총서 시리즈 판매중**

흙살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흙살림 유기농업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기농업총서를 통해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세요.

농사짓는 즐거움 |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 참농부  
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 | 한방영양학 개론  
유기재배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 이 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  
\*흙살림 회원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사무국 도서 담당 043-833-5004

# 유기농업은 저탄소농업에 큰 도움

## IFOAM 실행지침 중 생태적 차원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질산이다.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저탄소농축산식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담당자들 중에는 유기농업은 저탄소농업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이는 다수확을 위해 관행농업 이상으로 외부 자재의 다량 투입에 의존하는 일부 유기농업이 진정한 유기농업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인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농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IFOAM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의 생태적 차원에서 다섯 번째 항목인 '대기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을 소개한다.

### 가치와 가이드라인

● 농업과 그의 가치사슬은 대기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를 줄이는 방법, 인간이 지구 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질산과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의 장기간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이다.

● 유기농업은 토양에 유기물을 집적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탄소(토양)를 격리한다. 목초지를 바탕으로 하는 농사 시스템은 영년생 잔디로 관리될 때 탄소를 격리한다. 초지에서 방목에 의한 분뇨관리와 분뇨의 포장 사용도 열려 있는 분뇨 웅덩이를 가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대기중 메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상당히 많고 지속적인 메탄의 흐름/침출이 있다. 이 침출이 생물학적으로 활동적인 토양을 통해 흐른다면 상당 부분이 CO2(이산화탄소)로 전환되고, 그에 의해 온실가스 방출의 부정적 효과를 줄인다.

● (가치사슬)운영체들은 생물지구화학 순환을 최적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양분 특히 질소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대기로 질소 손실을 제한함으로써 지하수로 손실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성립한다; 암모니아와 같은 한 성분에서 손실을 제한하는 것은 아질산가스의 손실을 유도할 수 있다(오염물질 교환).

● 농장을 포함하여 가치사슬의 주어진 접점은 오염물질과 유해한 냄새를 이해할 책임이 있다. 이들 영향의 평가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방식과 긍정적인 영향이 만들어지는 방식, 개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결정한다. 운영체들이 대기로 온실가스나 기타 오염물질(CFC's, HFC's 등 합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는 화학제품이나 에너지원을 선택할 때 대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그에 상응하여 감소된다.

### 실행 사례

● 농업인들은 탄소를 격리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나무, 영구초지 및 기타 영년생 종들의 사용을 최적화한다.



● 농업인들은 메탄과 아질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분뇨 사용, 슬러리 저장 및 사용 방법을 최적화 한다.

● 모든 운영체들은 내연기관으로부터 탄소 방출을 최소화하도록 작업한다. 그들은 LPG, 바이오연료 또는 메탄과 같이 온실가스 방출이 적은 하이브리드나 기타 대체 연료 자동차로 전환해야 한다.

● 운영체들은 냉매 및 기타 사용에 있어 CHCs와 HFCs의 사용을 배제한다.

● 모든 운영체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사용을 줄

이고 제거한다. ● 가공장치에서 오는 온실가스와 1차 오염물질은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재순환되거나 격리된다.

● 모든 운영체들은 개선된 물류를 통해 운송 거리를 줄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장거리 운송을 피한다.

주) 가치사슬(value chain)은 자재 투입->농산물 생산->취급(세척, 운송, 보관) -> 가공-> 판매 -> 소비의 흐름이며, 운영체는 각 단계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기업 포함)임. 글 최관호 휴살림연구위원장

## 흙의 나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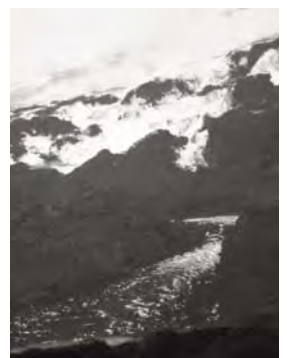
# 풍화와 생성작용으로 흙층 형성

지구중심부(外核)에서 끓고 있는 용융물질인 마그마(岩漿)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가스, 화산재(火山灰), 돌조각(岩片)과 함께 녹은 돌(熔岩)로 지표에 덮여 층층이 쌓이게 된다.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水)이고 다음으로 탄산가스를 많이 함유하며 황화수소와 아황산가스, 염화수소와 염소를 내뿜는 화산도 있어 황 함유가스가 대기에서 고체유황으로 변형된 것을 채취하기도 한다. 화산가스와 함께 입자의 크기가 다양한 화산회와 직경이 다른 암편이 화산틈새(火口)를 통해 지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암편이 분출염기성 암인 현무암층을 이루며 완만한 경사지형에서 굳어진 것이 제주도의 순상화산(楯狀)이다. 화산회, 분석(噴石)과 용암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제주도의 화산회토(Andisols)는 암색인 현무암(灰)을 모재로 한 젊은 흙으로 유기물함량이 높고 토

기와 보수성이 양호하여 식물 생육에 적합하며 염기성모계에서 출발하여 교환성양분이 많고 양이온교환용량이 높아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우수하다. 제주도의 화산회토는 화산회가 바람에 의한 퇴적(風積)으로 동남쪽에 흑색의 부식이 풍부한 화산재 층이 발달한 흙이 넓게 분포한다. 이 흙은 표층(A층)이 깊고 심층(B층)은 구조가 매우 약하여 흙색의 변화만이 감지되는 층(鑑識層, Cambic B)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화산회토가 여기에 속한다. 기타는 암편이나 분석 위에 화산재의 낙진으로 이루어진 표층/모재(A/C)로 구성되어 있다. 현무암(용암)에서 출발한 흙은 A층이 있고 흙색과 구조가 선명한 점토가 집적된 점토피막(clay film)을 갖는 층(Bt층), 그리고 모재층(C)및 암석층(D)으로 구조가 비교적 잘 진전된 성숙한 흙인 비화산회토(Alfisol)로 구분한다. 이같이 흙은 풍화와 생성작용

을 받아가며 나무의 나이트가 만들어지듯 흙층을 시간의 함수로 쌓고 있는 것이다. 모재와 기후, 식생, 지형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게 되면 흙에서도 생명체가 나타나며 바와 같이 특징있는 층위인 감식층이 생성되고 이를 활용하여 흙을 분류한다. 새로이 쌓인 화산회층(모재)으로 이루어진 흙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시간을 두고 흙이 생성되는 과정을 밟아 생성된 감식층이 없어 나뭇대로 층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숙토(Entisols)로 분류한다. 양이온이 풍부한 화산회에서 강수량이 많아 초생식물이 번성하고

많은 양의 유기물이 쌓이게 되면서 흙색이 흑색이 되고 감식표층인 멜라니(黑色)층이 매우 깊은 흙으로 발달하여 성숙한 흙이 생성된다. 광물질에서 발달한 표층(A)과 달리 초본식생의 유년기 흙에서는 표층위에 유기물로만 된 감식층인 유기물층(O층)이 형성된다. 화산회에서 발달한 흙 중에는 흙색과 유기물함량으로 보면 O층으로 분류해야하나 화산회특성(andic)이 강해 O층을 붙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흙의 성질이 특징화하면서 현장에서 감식층위가 식별되기 시작하여 성숙기 흙(Alfisol)에서는 이동 집적



한 점토피막층이 선명하게 존재하고 나이가 더 들어 완숙기에 이르러진 흙(Ultisols)이 되면 이 층은 최고(極)에 달했다(가노년기에 이르러 노쇠한 흙(Oxisols)에서는 이층이 파괴되고 흙으로서 말년을 맞게 된다.

글 신계성 휴살림 고문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인·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0934·전송 043)833-2959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중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전송 043)833-5007

# ‘흙살림 연수원’서 유기농 꿈 키워요

## 7월 4일 현판식...생산자 교육 등 진행

흙살림이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난 7월 4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서는 이태근 흙살림 대표, 박종화 흙살림 상무이사, 윤성희 흙살림푸드 대표이사, 송정호 괴산군 유기농산업과장을 비롯해 관련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흙살림연수원 현판식이 열렸다. 흙살림연수원은 흙살림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농가 농민을 비롯해 친환경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흙살림의 철

학과 비전, 친환경 유기농업의 당위성과 전망 등을 교육하는 장이 될 것이다. 흙살림 연수원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총 8개의 방과 식당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장기 교육도 가능해 흙살림과 생산 농민들, 친환경 유기농업 관계자들 간의 유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흙살림연수원은 지난 2000년 환경농업의 과학화를 내세웠던 흙살림 환경농업교육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유기농업 교육의 도약을 위한 유기농

생명학교로 우뚝 설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18~19일에는 흙살림연수원에서 첫 번째로 흙살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1박 2일 교육이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여든 생산자 10여명은 대상으로 첫날엔 흙살림의 철학, 유통 방법과 기준, 흙살림 유기농자재 설명과 함께 KBS파노라마 방송 내용에 대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8,9면> 이튿날엔 흙살림 공장과 토종연구소, 농장, 청주센터와 오창센터를 견학하면서 흙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지난 7월 4일 흙살림연수원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태근 흙살림 회장, 송정호 괴산군유기농산업과장.

## 흙살림 유기농 도서관 개관

흙살림은 지난 7월 4일 흙살림연수원 개원과 때를 맞추어 유기농 도서관(사진)을 열었다. 유기농 도서관은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흙살림연수원과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국내외 유기농 관련도서 5,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유기농도서관의 책들은 대부분 유기농업 연구자들이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기증한 도서로 꾸며져 있다. 우리나라 제 1호 유기농

업박사인 최병철 박사는 미국의 로데일 연구소에서 직접 가져온 <농업성전><흙과 건강><생명농법원리> 원본을 비롯해 평생을 모아 온 유기농업 전문도서를 기증했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사)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인 최양부 농업경제학 박사와 일본의 선진 유기농업 기술을 알리는데 앞장서 온 김광은 씨도 유기농도서관에 책을 기증해왔다.



또한 임옥상 화가와 오과칠 흙살림 이사는 다양한 교양 서적을 나눔으로써 유기농도서관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었다. 유기농 도서관 및 기증 관련 문의 : 흙살림연구소 043-833-5004.

**트툽칼**  
-수용성 칼슘공급 칼슘 17%  
-무농약재배까지

**흙살림 라임**  
-서스펜션 유기농 칼슘 35%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품  
-공사-4-1-25

**잘잘아**  
-유기농자재목록공시  
-공사-3-5-15  
-토양살충용 입상제  
-식물추출물 함유. 기계 살포 가능  
-식물 뿌리 피해 해충에 효과적

**벼도열병, 딸기 흰가루병,  
구기자 흰가루병 잡아라!  
예방과 방제를  
겸비한 작물 보호제,  
입살림!**

흙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진흥청 특허 미생물 (특허번호 100407074)로 흙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등록번호 : 37-살균-1 \*품목명 : 바실러스서브틸리스 제이케이케이238 액상제

## 정밀하고 신속한 흙살림 안전성분석안내 [공인분석기관]

[흙살림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분석비(원)	분석기간(일)	
잔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 항목	110,000	
		102 항목	140,000	
	다성분	177 항목	220,000	
		245 항목	280,000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중금속, 발아율 등 1개 항목	4,000~40,000	5~14	
토양	이화학(시비처방서 포함)	질소 등 9항목	30,000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8성분	88,000	
GMO	콩	150,000	3~10	
	옥수수 및 혼합품(옥수수+콩)	200,000		
쌀·현미 품종검사	정성	맵쌀	3~10	
	정량	맵쌀		200,000
		찹쌀		300,000
미생물	일반미생물	1종	7~14	
	병원성미생물	1종		30,000

\*분석비: 부가세 별도

협약을 통한 분석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 잔류농약	043-292-8179 (담당: 홍정옥, 심주연)	· 중금속 및 퇴비	070-4035-4958 (담당: 강수진)
상담 · 토양이화학	070-4035-4958 (담당: 강수진)	· GMO, 병원성미생물, 쌀현미품종	070-4035-4659 (담당: 한혜수)

## 흙살림 미생물배양 배지종균 공급시작

### 제품구성

- 흙살림 바실러스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유산균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효모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광합성균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방선균 메디움 및 종균

### 제품 특징 및 효과

- 20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배지 및 종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종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 배양문의

- 양병근 박사 070-4035-4658



# 50ppb 이하 잔류농약까지 검사 가능



GC(ECD 및 NPD)



HPLC



HPLC-MSMS



GC-MSMS



GC(μ-ECD)

## 홍살림 유기농연구소 <4·끝>-잔류농약 검사

**■ 농약과 잔류농약**  
국내 「농약관리법」 제 2조에 따르면 농약이란 ①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②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③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천연식품보호조례란 ①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②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말한다. 농약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살균·제초제 등으로 농작물에 사용하기 전의 병에 담긴 그 자체의 약을 의미한다. 반면 잔류농약이란 농약을 수백~수천 배 희석하여 농작물에 살포 된 농약이 작물체나 환경(수질, 토양, 대기)중에 존재할 때의 농약을 의미한다. 잔류농약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MRLs))이란 식품 중에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

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농산물 재배를 위하여 사용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홍살림 유기농연구소의 잔류농약분석**  
홍살림 유기농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비료시험연구기관, 쌀·현미품질검정기관 등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약분석과 관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 농약시험연구기관(농촌진

후시험) 및 친환경인증 관련 잔류농약분석과 같은 외부고객(소비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 분석기기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GC(Gas Chromatography), LC-MSMS, GC-MSMS 등 고성능의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분석기기의 성능은 LC-MSMS를 기준으로 50 μg/kg 이하의 잔류농약까지 검출이 가능한 기종으로 해당제조사의 모델 중 최고사양이다.

### ■ 분석항목 및 기간

분석항목은 1개성분의 농약을 검사하는 단성분 분석과 여러 성분의 농약을 검사하는 다성분 분석이 있다. 분석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불검출 시 3일 이내이며, 검출 및 검출 의심 시에는 몇 일 더 소요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검출 성분에 따라 다르며, 의뢰접수일 기준으로 최대 14일 이내 분석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 LC-MSMS 최고사양 모델 안전 농산물 공급에 기여

홍청)으로 지정받은 공인분석기관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및 유기합성농약 등록을 위한 이화학 및 잔류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농산물의 잔류농약분석이 주된 업무이다.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잔류농약 등) 조사를 통해 부적합 품목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분석과 관련하여 내부 품질관리검사(유통농산물의 출하 전 산지검사 및

분석항목	
단성분분석	1 항목
다성분분석	245항목
	기타항목 (상담요망)

**■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 :** 박인영, 홍정옥 (Tel. 043-292-8179 / Fax. 043-292-2959)

## 친환경농업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농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밝혔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방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농식품은 상대방 규정에

##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다. **■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 금번 한미 유기농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

기농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농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농식품에 한정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 불가  
-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적용 **■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농식품에 한정  
-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식품은 한국으로 수출 불가  
-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 적용 **■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제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증로고**      **미국인증로고**  
- 상대방에 수출한 인증제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체결된 만큼,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 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2-0934

# 작물 충해 관리용 자재



각종 해충을 방제합니다.

500ml

## 파워진달래

목록공시등재번호 공시-3-2-5

- 천연식물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진딧물, 응애방제에 효과적



500ml

## 잘들어

목록등재번호 공시-3-5-7

- 천연식물 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각종 해충에 대해 적용 가능



1L

## 청달래

목록등재번호 공시-3-5-1

- BT제재로 안전
- 나방 및 나비 유충 등에 효과적



#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병이 와도 끄떡 없도록!

10L

1L

## 탄탄탄

목록등재번호 공시-4-2-22

- 방선균에 의한 항생효과
- 발생 전 처리시 효과 증대



500ml

## 황수화제

목록등재번호 공시-4-2-25

- 천연 향균물질인 황을 간편하게 사용
- 흰가루병에 강력한 효과



# “친환경 유기농업 공정하게 다뤄라”

## KBS파노라마 편파방송 규탄 대회

친환경유기농업 농민들이 뿔났다. 뜨거운 한여름 아스팔트 열기도 이들의 분노와 함성을 따라잡진 못했다.

전국 친환경유기농업 농민과 소비자 2500여명은 7월25일 오후2시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KBS 파노라마 친환경 농업 왜곡방송 규탄대회'를 열고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을 다룰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지키기 위한 KBS방송대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대회에는 농사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친환경유기농업 농민들이 대거 단체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유기농 도시소비자들까지 참석해 KBS가 준비하고 있는 'KBS파노라마' 왜곡방송내용을 공개하고 "유기농 본질 부정하는 KBS를 규탄한다", "유기농은 사회적 약속이다, 유기농은 분석만이 농사가 아니라 과정이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방송중단을 요구했다.

비대위 집행위원장인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 박종권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우리농업의 희망인 상생의 유기농업을 죽이려는 방송 강행으로 다수 정직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방송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또한 파노라마방송 인터뷰를 했던 성주 유기잡의생산자 이일용 씨는 억울함에 울먹이면서 "이 방송은 농사짓는 재주밖에 없는 힘없는 농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개인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작물시료를 검사해본 결과 방송PD가 주장하는 농약이 불검출되었다"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방송금지 가져분신청을 낸 사실도 공개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도 연단에 올라 "농민 자각에서 시작한 한국 유기농업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힘든 농민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방송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일부 사례로 다수 정직한 농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을 다룰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서의 친환경유기농업이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비대위 대표들은 항의 결의서한을 들고 KBS를 찾아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몇 가지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면담 후 대표발언을 한 이태근 충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농약 묻은 유기농’이라는 방송제목은 고지겠다는 것과 취재과정에서 시료를 검사한 분석기관을 방송에서 밝힌다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 초반에 유기농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고 유기농업을 오래 하는 분 사례를 보충 취재해 함께 방송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비대위는 KBS의 방송을 지켜본 후 앞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가진 해산했다.

이우성 괴산 농부



7월 25일 서울 KBS본관 앞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 농민·소비자 2500여명이 모여 KBS파노라마 편파 방송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 유기농업은 전 국민의 희망이다

### 전망대

지난 7월 25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오후 전국의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소비자 단체 대표 2500명이 KBS 앞에 모였다. KBS에서 7월말과 8월초 2부작으로 방영하는 <KBS 파노라마-친환경유기농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일부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부실인증이나 인증위반 사례로 비판을 받은 사례가 몇 차례 있다. ‘농약 묻은 유기농산물’은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KBS는 일부 문제를 전체 유기농업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이 한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불가능한 농업이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소비자가 속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

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고 논리 비약이 심각하다.

KBS 제작팀은 유기농자재와 유기농산물을 농사짓는 토양을 분석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KBS가 주장하는 농약잔류물 수치는 객관성이 없는 분석 결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KBS가 이번 분석결과에 근거해 ‘농약잔류 유기농’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로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다.

KBS 파노라마 제작팀의 잘못된 자료와 전체를 지적하는 것과 함께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친환경유기농업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인증-유통-정책-철학’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생산하는 농민과 그것을 먹는 소비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철학을 공유해야 성

립되는 농업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소농 중심 생산양식에서는 유기농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땅의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킨다’는 철학 없이는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은 지금까지 수십 번의 법 개정과 수많은 규정 변화를 거쳐 왔다. 일관되지 못한 만신창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정책 따로, 농민 따로, 소비자 따로인 채 오직 농약분석으로만 친환경유기농업을 따져온 것일 뿐이다. 분석은 단지 조연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환경농업의 미래가 없다.

세계에서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나라, 농약분석으로 유기농을 따지는 나라, 최첨단 농약분석기와 유기농자재까지 품질인증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기농 면적에 비해 가장 많은 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 53, 대학인증기관 15,

외국인증기관 4, 정부인증기관 110)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농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부분의 농대가 인증기관을 만들어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하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지원하는 연구비와 친환경 연구센터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독식하면서도 제대로 된 전문가나 연구결과를 내놓은 적은 없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KBS는 ‘농약 묻은 유기농’이 온전히 농가나 인증기관의 책임이라고 몰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의 책임은 생태·건강·공정·배려라는 철학이 없는 정책담당자, 제대로 된 연구는 하지 않고 유기농 혈통기에 앞장서는 일부 대학교수, 무책임하고 능력 없는 일부 인증기관, 보조금에만 목매는 일부 농민의 잘못이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는 대부분의 친환경·유기 농

민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일부 대학교수들이 조언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순적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유기농업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지 벌써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간단체와 농민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친환경 유기농업은 초창기 정부의 농산물 중산정책과 배치된다고 여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많은 농민과 소비자들은 오염되고 죽어가는 흙과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 생산양식을 만들어 가는 실천 속에서 한국농업의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유기농업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KBS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농약을 우리나라 농지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든지 않을 수 없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





# 친환경 집짓기와 지붕·옥상 녹화

## 텃밭 정원 가꾸기 <6>

### 세덤류·지피식물이 옥상 재배에 적합

30도를 훨씬 넘어서는 여름기온에 따라 실내온도도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쾌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컨의 가동시간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건축물의 재료는 자연재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콘크리트나 철재 또는 유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재료들은 외부의 기후나 환경으로 부터의 보호라는 건축물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 난방이나 냉방 등 건축물 실내환경의 공기조화에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집이나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람의 생활에 적합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토양과 식물을 활용하여 지붕이나 옥상을 녹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친환경 건축물로서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옥상이나 지붕을 녹화할 경우 식물이나 흙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화할 때 열을 빼앗아 가는 증발잠열효과(蒸發潛熱效果)로 인해 일사량의 60~70%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건축을 목표로 최근에는 건물의 하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단열효과와 함께 경관적, 생태적

인 측면을 고려한 경량녹화형 지붕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토양의 깊이는 20cm 이하, 평방미터 당 부하하중은 200kg 이하를 기준으로 조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물이 잘 생육할 수 있고 건물의 보호가 가능한 녹화층을 옥상이나 지붕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수와 배수 및 선정된 식물이 생육하기 위한 식재 기반층(토양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옥상 녹화층은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상부에 단열층, 방수방근층, 배수층 및 식생층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의 규모나 식생의 종류, 건축물의 마감 방법에 따라서 단열층이나 방수방근층 등을 더욱 강화하거나 축소는 것이 가능하다.

옥상녹화의 경우 토양의 깊이나 관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식물수종을 선정하게 되는데, 관리를 최소화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얇은 토심과 고온이나 건조에 강한 다육식물(多肉植物, succulent plant)의 일종인 세덤(Sedum)류의 식물이나 건조에 강한 지피식물을 식재수종으로 선정하여 심는 것이 좋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옥상이나 지붕은 식물의 생육에는 매우 적합한 환경이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식물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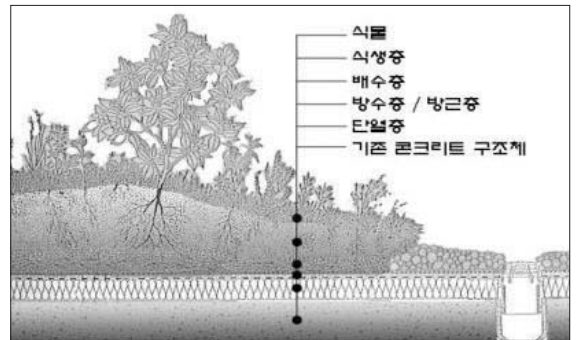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세덤을 활용해 지붕을 녹화했다.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지붕녹화 사례.

하는게 좋다. 또 식물의 관리를 위한 접근로 확보나 필요시 잡초의 제거도 가능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낙엽이나 쓰레기 등에 의하여 배수구나 드레인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배수가 지체돼 건물 하중을 가중시키거나 누수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최근에는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서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녹화지붕을 적용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주택을 꾸며보는 것도 좋은 귀농귀촌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글 신인환 조경기술사 및 휴살림 도시농업자문위원



옥상녹화층의 구조



옥상에 논을 조성한 일본 사례.



해의 지붕 녹화 사례.

### 옥상(지붕)녹화 식물의 종류

구분	종류
세덤류	분홍세덤, 흰꽃세덤, 사철채송화, 기린초, 파랑세덤, 애기솔세덤, 무늬돌나물, 꿩의비름, 땅채송화, 리플렉섬, 맥시카넬, 바위채송화
자생초화류	벌개미취, 좀비비추, 수호초, 두메부추, 상록패랭이, 아주가, 한라구절초, 좀씀바귀

### 유기농 도시농업용 신제품

## 텃밭자재



**상지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질을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상지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 휴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그로우백 17~21L**

임체세포용과 열매세포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심맞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임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임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 균배양체 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발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도 정도 사용하면 돼요.

# ‘흙이 주는 선물’ 직접 받아보세요

신탄진·세종시에 친환경농식품 매장 오픈

흙이 주는 건강한 음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향기 맡고, 만져 보고 골라 가세요.

8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에 오프라인 직거래 매장 ‘흙이 주는 선물’ 신탄진 매장이 문을 연다. 친환경농식품 유통전문기업 (주)오가닉 기반의 친환경 전문매장인 ‘흙이 주는 선물’은 친환경 주·잡곡류, 과일·과채류, 채소, 가공품, 축·수산물, 생활용품 및 도시농자재 등을 공급·판매한다. 흙살림 자체 농장에서 일체의 농약과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생산하는 토종 주·잡곡류와 과채류, 채소류를 비롯해 자체 가공품인 녹

차·잼·강정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잔류농약 분석과 토양 분석 시설을 갖춘 흙살림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농식품 매장이라 할 수 있다. 8월 중 신탄진 매장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세종점이 들어 설 예정이다.

‘흙이 주는 선물’이라는 이름을 내건 친환경농산물 매장이 8월 13일 신탄진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8월 중 세종시를 비롯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블로그 엿보기

### 흙살림 ‘채소 꾸러미’ 믿고 먹을 수 있어 좋아요

### 과일꾸러미 당도 최고



요즘 농산품 꾸러미라고 다들 한번은 들어봤으리라 생각한다. 직영농장과 생산자 농가에서 직접 지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직접 꾸러미 형태로 받은 것을 말한다. 흙살림에는 생활꾸러미, 채소 꾸러미, 과일꾸러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생활꾸러미를 받다가 생협에 가입하게 되면서 채소 꾸러미로 바꾸었다. 매주 받을 수도 있고 2주에 한번 받을 수도 있다. 목요일마다 우체국 택배로 받게 된다. 물품 안내장에는 요리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또 내

가 알지 못하는 채소를 익히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단점은 채소 소비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을 수도 있다는 점. 본인의 기호에 맞는 것으로 식단 짜기를 좋아한다면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하니 나쁠 수도!! 덕분에 채소 소비를 늘릴 수 있어서 넘 좋았던 흙살림. 직접 농약을 치지 않고 내가 길러 먹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원한다면 이용해 봐도 좋을 듯하다. 유기농, 무농약 표시도 빠르게 되어 있다.

출처 <울림말> 블로그

과일을 사랑하는 가족. 과일값도 과일값이지만 요즘 뭐하나 믿고 먹을 수 있나요?? 흙살림에서 나오는 채소 꾸러미, 생활 꾸러미, 과일꾸러미. 그중 메텔씨가 선택한 건 과일꾸러미. 월 2회 배송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에 대만족하며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최고! 모든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저농약·무농약 인증제품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정말 맛있어! 아이들은 앉은 자리서 한 팩씩 다 먹어치워 버리는 블루베리, 살짝 쿡 얼려서 먹어도 아주 맛나요.

출처 <철이에겐 메텔> 블로그

홍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흙살림

## 흙과 햇살이 주는 건강한 선물

# 흙살림꾸러미

친환경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매주 집에서! 흙살림꾸러미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흙살림꾸러미는 무엇이 좋은가요?**

- 건강한 먹을거리, 직거래로 편안하게 받아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매주 품목을 달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밭에서는 농부가 안전하고, 밥상에서는 가족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나눔 공동체 실현.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 매주 꾸러미가 기대돼요! 반복되던 식단에서 벗어나 꾸러미를 활용한 다양한 식단을 완성하세요.

### 생활꾸러미

가장 기본이 되는 꾸러미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및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간식거리로 구성된 꾸러미입니다. [월 4회 : 10만원, 월 2회 : 5만원]

### 채소꾸러미

채식인,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입니다. 생활꾸러미에서 계란이나 육가공, 수산가공품은 빼고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모았습니다. [월 4회 : 6만원]

### 과일꾸러미

과일은 농약없이 키르기 힘들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과일과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과일꾸러미입니다. [월 2회 : 6만원, 월 1회 : 4만원]

꾸러미 구입문의 080-858-6262 | 010-9864-8007(문자상담가능) | shop.heuksalim.com

Copyright © VDOOZ Co., Ltd. All rights reserved.

# 일본 유기농업 제휴의 10가지 원칙

## 일본의 유기농업 현황 ③

### 2000년 이후 지역밀착형 제휴 형태 증가

#### ■ 제휴란 무엇인가?

일본의 유기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휴관계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제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에서 제휴는 1970년대에 야마가타현의 다카하타, 효현의 이치지마, 치바현의 미요시무라 등 지역의 생산자 그룹이 동경, 고베, 요코하마 등 대도시의 소비자 그룹과 안전한 농산물을 매개로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도시만이 아니라 지방의 도시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 그룹이 생겨나면서 제휴 운동이 지역적으로 퍼져나가기게 된다. 90년대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지역과 참가자들에게 맞는 제휴형태와 운영방식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일본 유기농업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일본유기농업 연구회(1971년 결성)는 1978년에 개최된 제4회 전국유기농업대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휴의 열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휴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유기농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 ■ 제휴의 열가지 원칙

**첫번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의 본질은 물건을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의 우호적인 사귀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둘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생활을 되짚어보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상담을 통해 그 토지에서 가능한 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만큼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번째,** 소비자는 그러한 희망에 따라 생산된 것을 모두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활을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이에 의존하도록 한다.

**네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생산자는 생산물을 모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노력과 경비를 줄이도록 한다. 한편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하며 맛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다섯번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끼리 만나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번째,** 운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삼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그룹 혹은 소비자 그룹이 직접 소비자 그룹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번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그룹 내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소수의 리더에게 지나치



일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유기농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사진은 치바현의 미요시무라 농산물이 출하되는 모습.

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가능한 한 전원이 책임을 분담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다만 구성원의 사정을 잘 고려하여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번째,** 생산자와 소비자 각 그룹은 그룹 내 학습활동을 중시하고 단순히 안전한 식량을 제공하고 획득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번째,** 그룹 내 인원이 많아지거나 지역이 커지게 되면 위와 같은 실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룹 만들기에 관해 지역 크기나 구성원 적정 규모에 신경을 써야하며 그룹 수를 늘림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번째,** 위와 같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발족하는 것은 어렵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예상 가능한 상대를 선택하고 발족한 이후에 천천히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지역밀착형으로 다양화하는 제휴

2000년 이후 현재에는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제휴관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 '지역'이라는 요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이를 필자는 기존의 제휴와 구분하여 '지역밀착'형 유기농업이라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단순히 농산물을 거래하는 차원

을 넘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이 지지하는 농업),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스위스의 ACP(Agriculture Contractuelle de Proximite, 생산자와 소비자 근접 계약 농업) 등 그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지역의 농가와 농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는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 김기흥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와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취약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결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오창벤처프라자 303호  
 전화 043-212-0934 전승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lcf.kr 이메일 admin@kalcf.kr

# 올무로 '여름 샐러드' 만들어 보세요

## 고은정의 농식약동원

올무는 내게 아주 특별한 잡곡이다. 지리산으로 이사를 오던 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시작해 끝도 없이 계속되는 토사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의 사선생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은 약이 바로 올무죽과 올무차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 올무죽을 끓여 먹고 올무로 차를 달여 마시며 지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자주 올무를 밥상에 올린다. 원산지가 베트남인 올무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발이 낮은 습지에서 잘 생육한다. 탄수화물 67.7%, 단백질 13.8%, 지방 5.1%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콩류를 제외하면 잡곡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곡식이기도 하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로이신(Leucine)과 타이로신(Tyrosine)이 풍부하며, 특히 피부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어 피부암에도 탁월하다고 한다. 또한 다른 곡물들과 달리 찹기가 있어 올무를 넣고 밥을 짓거나 음식을 하면 씹을 때 느껴지는 쫄쫄한 식감이 꽤나 좋은 식재료이다. 의이(薏苡)라는 식물의 열매를 미인(米仁)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하여 한약명으로는 의

미(薏米), 혹은 의이인(薏苡仁)이라 불리는 올무는 비위를 튼튼히 하고 폐를 보익하며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풍습(風濕)을 제거해주고 특히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재주가 있다. 올무는 곡물 중에서 이노작용이 가장 강하여 온몸의 습(濕)을 거두어 소변으로 빼내므로 장 기능이 떨어져 설사를 하는 사람도 올무를 먹으면 설사를 멈출 수 있다. 습(濕)이 성하여 피부가 희멀겁고 살이 물렁거리며 변이 묽고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식재료가 올무이다. 올무를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는 속설도 있지만 몸에 습(濕)이성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분대사의 최강자라 부를 수 있는 올무는 습도가 높은 여름에 제격인 식재료이다. 대기에 습도가 높아지면 인체도 당당히 습(濕)이 정체되어 몸이 무거워지고 노인들의 경우 관절의 여기저기가 아프기 마련이다. 이때 올무를 쌀과 함께 넣고 밥을 해먹거나 올무를 볶아 차로 끓여 마시고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으면 몸에 쌓이는 습



수분대사의 최강자라 부를 수 있는 올무는 습도가 높은 여름에 제격인 식재료이다.

(濕)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튀밥으로 만들어 바쁜 아침에 우유와 함께 먹어도 좋고 강정으로 만들어 어린이 간식으로 활용해도 좋다. 올무와 함께 몸에 적체된 수분을 빼주는 좋은 재료인 팔이나 옥수수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별미로 즐길 수 있다. 오늘날은 올무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밥상에 올린다. 이름 하

여 '여름샐러드'다. 샐러드용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갔다 건져 물기를 뺀다. 그리고 올무와 팥을 무르게 삶아 올리브유, 소금, 후추에 버무려준다. 두부를 깍두기 크기로 잘라 소금을 뿌려 수분을 제거한다. 수분대사에 좋은 또 다른 식재료인 토마토를 잘라 소금, 후추, 올리브유에 버무린다. 이제 큰 볼에 채소를 담고

올무와 팥, 두부, 토마토를 넣고 오일소스를 끼얹으면 된다. 상큼하고 고소하며 쫄쫄해서 좋다. 올무와 팥, 두부가 들어가 밥이 없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여 더 좋다. 수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여 몸이 무거운 사람이라면 올무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시작해볼 일이다. 글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밀전병



국수

## 칠월칠석, 햇밀로 만든 음식 풍성

### 웰빙식의 최종 진화 '세시음식'

■ 동양의 발렌타인데이, 칠월칠석  
칠월칠석은 전우성과 직녀성이 오작교를 통해 1년 중 단 한 차례 만난다는 전설이 있는 날이다. 음력 7월 7일이면 처녀들은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늘기를 빌고, 소년들은 전우성에 학업성취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칠석 음식으로는 밀전병과 밀국수, 증편, 주악, 규아상, 영계찜, 열무김치, 밀설기 등 다양한 음식이 있었다. 햇밀이 수확된 시기이므로 전병, 국수, 만두 등 밀로 만든 음식이 많으며 특히 밀전병은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이다. 증편은 고려 때 원(元)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귀한 밀가루 대신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발효시켜 찌 먹은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강릉 지방의 향토음식인 방울증편은 건식, 밥, 팥, 후춧가루를 넣고 거피 팥고물을 사이에 끼워 두툼떡 모양으로 찌는 독특한 증편이다. 지방에 따라 감잎에 감싸거나 멥감나무 잎(청미래덩굴)에 싸서 보관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가 있다. 주악은 조약돌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후 꿀을 바른 떡으로 쉼이 상하지 않는다. 이북지방에 많은 떡 종류로 개성식 주악은 막걸리로 반죽하는 것이 특징이다. ■ 서양에는 할로윈축제, 동양에는 백중

달이 가득 차는 음력 7월 15일은 백중(百中)이라 하여 도교에서 말하는 1년의 한 가운데 날이다. 중원(中元)이라고 하는 백중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혼령들이 사방에 출몰한다 하여 귀신의 날 또는 망혼일이라고도 한다. 정월 대보름을 상원, 백중을 중원, 시월보름(시월 상달)을 하원이라하여 인간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1년으로 보았다. 조상께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려를 직접 모시거나 직접 사찰을 찾아 불제(佛齋)를 지내는 풍습이 존재한다. 백중에는 갖가지 과일과 향과 맛이 너무 좋아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라는 뜻인 멋스러운 떡인 석탄병(惜吞餅)을 절식으로 즐긴다. 출처 농촌진흥청 인테러빙 '세시음식'

**이달의 흙살림 자재**

**흙살림 빛모음**



1. 등록사항  
- 유기농업자재 : 공시-4-1-26
2. 원료 : 광합성균 (Rhodospseudomonas palustris) 100%
3. 사용량  
- 500배 희석액 토양 관주 처리

# 품질·생육 촉진 광합성 미생물

■ 특징

- 1) 22년 전통으로 국내 최초로 등록된 광합성 미생물 제제입니다.
- 2) 광합성 세균을 고밀도로 순수 배양한 미생물 비료입니다.
- 3) 토양 내 유해가스와 염류를 제거하여 뿌리 발육을 촉진합니다.
- 4) 광합성 세균은 각종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여 작물에 제공, 품질과 생육을 촉진시킵니다.
- 5) 천연 카로티노이드 색소로 착색을 좋게 해줍니다.
- 6) 재배시험 결과 토양에 처리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리균이 꾸준히 증가하고 토양 곰팡이의 밀도가 저해되고 방선균의 밀도가 증가되며, 무의 무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효과

- 1) 2007년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에서 무를 대상으로 실험 한 결과  
(9개 시험구로 각 시험구당 무 20주씩 재배)



그림1. 빛모음 처리 전(왼쪽)과 후

표1. 미생물 분석 결과

상토 종류	조사 회수에 따른 균밀도(×100000/g)					증감률 (%)*
	처리전	1	2	3	4	
총 세균	24.67	30.33	35.67	32.33	40.67	165
방선균	1.87	2.07	2.63	2.30	3.97	212
곰팡이	0.37	0.46	0.31	0.30	0.25	-32
광합성균	0.00	0.01	0.02	0.02	0.17	-

\* 증감률 : (4회 처리 후 밀도-처리전 밀도)/처리전 밀도×100  
표2. 무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

	둘레길이(cm)	지하부생체중(g)
Control	22.90	400.00
기준량	24.10(5.23↑)	464.17(16.04↑)
2배량	24.40(6.41↑)	496.67(24.17↑)

\* : 괄호안의 숫자는 무처리구의 값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임.

2) 결론

가. 둘레길이 및 지하부 생체중 측면에서 무의 생장에 도움을 주었다.  
나. 둘레 길이는 기준량과 2배량에서 무처리 보다 5.23%, 6.41% 증가하였다.  
다. 지하부 생체중 또한 기준량과 2배량에서 무처리 대비 각각 16.04%, 24.17% 증가 효과가 있었다.  
라. 총 세균과 방선균 밀도를 증가시킨 것도 확인 되었다.  
마. 비해 및 식물병, 선충 등의 감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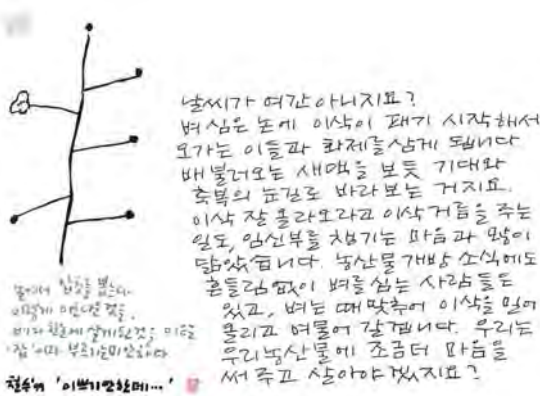
● 자급종자 농가를 찾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자급종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자를 직접 자급하고 있는 농가나 그런 농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흙살림에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 흙살림 사무국 043-833-5004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이쁘기만 한데...



##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유기농자재는 물론 농산품, 농업관련정책 등 농업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흙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하세요. 흙살림 신문은 흙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뿌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 모두가 모두 읽는 소식지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목적하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기농업의 '믿음 가는 동반자' 흙살림과 함께 하세요. 흙살림 신문 광고 문의 : (043-833-5004)

신개념 기능성 복합 성균제

### 슈퍼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 슈퍼도움이는 국내 환경에서 적응된 우수한 균주 중에서 선발된 미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장내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철저한 사양실험과 위생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높은 균 밀도를 유지하여 항생제로 약해진 가축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 면역증강물질인 만난올리고당, 베타글루칸, 유카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억제하여 장내 미생물총에 유익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 미생물의 대사 부산물이 장내 산도를 조절하므로 유해균 발생이 억제됩니다.
  -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키며, 발효축진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유전자 조작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고조균, 유산균, 효모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방법  
·배합사료 혼합 : 사료 5톤당 5~10kg 혼합하여 사용

사료비 절감을 위한

### 발효도움이

발효사료 제조용 성균제



제품의 특징 및 효과

- 발효도움이는 흙살림의 특허미생물 기술을 바탕으로 선발된 우수한 미생물을 사용했습니다.
  - 발효도움이는 국내 환경에 알맞은 우수한 생균제 제품입니다.
  -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생태학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암모니아, 아민 등과 같은 유해가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 각종 유기산의 생성으로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 기호성을 증가시켜 사료효율을 향상시킵니다.
  -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키며 발효축진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발효사료 제조시 발효환경을 최적화 시킵니다.
- 사용방법  
·원료 250g 기준으로 발효도움이 1포(2g) 혼합  
·TMR 제조시 원료 1톤당 5포(10kg) 혼합



## 홍살림임직원 1박2일 워크숍

지난 7월 4~5일 홍살림연수원에서 홍살림 임직원 워크숍이 진행됐다. 강대성 SK행복나래 대표이사의 조직내 성과의 비결(능력 과 열의, 태도의 삼위일체) 강

연과 이태근 홍살림 회장의 유기농업 외부 환경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홍살림의 비전을 공유하고 위상을 제고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각 부서별로 상

반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목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서 간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 업무진행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 대산농촌문화재단 장학생 하계연수

7월 9일~10일 충북 괴산 앵천리의 홍살림 연수원과 삼방리 토종농장에서는 대산농촌문화재단 장학생 10명이 1박 2일 하계연수로 선진농업현장 교육을 받았다. 이태근 홍살림 회장은 "지금의 농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유기농"이라며 홍살림의 농업 철학과 농업이 지닌 가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육생들은 이와 함께 홍살림 토종연구소 견학하며 토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 홍살림 유통 참여 농가 연수

### 매달 1박 2일 교육

(사)홍살림연구소가 홍살림 유통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달 1박 2일간 진행되며 8월엔 22~23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홍살림의 유기농업 교육프로그램은 홍살림의 철학과 함께 유기농업의 흐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홍살림의 생산 기술을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꾸러미·유기농매장·학교 급식 등 홍살림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소개하고 합

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교육 참여농가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휴과 유기농 퇴비 만들기, 병충해 방제 기술 등을 배움으로써 유기농업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홍살림과 함께 유기농업의 길을 걷고 싶으신 생산자 농민들과 귀농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기타 자세한 교육 일정과 내용에 대해선 홍살림연구소로 문의. 전화 043-833-5004 팩스 043-833-5007 이메일 nedjem@hanmail.net 홈페이지 www.heuk.or.kr

## 홍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생 모집

### ■ 교육소개

#### ○ 현장실습교육(WPI)이란?

- 선도농업인의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현장 실습 교육 습득으로 경쟁력 제고
-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으로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시킴

#### ■ 홍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장 정보

- 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쇠살리 286-138
- 유형 및 품목 : 전국대표실습장 / 수도작, 시설채소류

### ■ 교육과정소개

#### ○ 교육 과정 및 모집 시기

구분	대상	모집기간	교육실시	내용	교육비(1인)
유기자체 만들기	귀농인	2월~11월	2월~11월	-균배양제, 완숙 퇴비 만들기	45,000원
	농업인			-액비 만들기	
친환경 시설채소 재배	귀농인	6월~8월	7월~8월	-시설채소재배 실습	296,000원

### ■ 교육문의상단

- 세부 교육 일정과 내용은 사단법인 홍살림연구소로 문의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교육문의 : 전화)043-833-5004, 팩스)043-833-5007, 이메일)micol112@heuksalim.com
- 은행 및 계좌번호 : 301-0142-0798-61 / 농협 -입금처 : 사단법인 홍살림연구소



## 홍살림 신문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홍살림 신문을 애독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홍살림 신문은 1992년 6월 제1호를 발행한 이래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에 힘입어 지난 4월엔 200호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신문 제작·발송 관련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홍살림은 부득이하게 신문 발송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살림 신문을 배달받고 있는 회원(독자)분들 중 신문이 담고 있는 정보와 소식, 인터뷰 등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발송을 지속하려 합니다. 신문을 계속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사)홍살림연구소 043-833-5004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없다면 오는 10월부터 배달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홍살림 신문을 성원해주신 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홍살림 신문은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사)홍살림연구소 043-833-5004.

### ■ 7월 홍살림 주요 일정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4일	괴산	행사	45	홍살림연수원 개원식 및 유기농도서관 개관식
4~5일	괴산	워크숍	40	홍살림 임직원 워크숍
9~10일	괴산	교육	15	대산농촌문화재단 장학생 선진농업현장 교육
10일	괴산	교육	30	부여농업기술센터 유기자체만들기
11~12일	괴산	견학	7	제주도 한살림 회원 견학
17일	괴산	회의	6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분과회의
	부산	교육	30	부산농업기술센터 교육
18~19일	괴산	연수	17	홍살림 생산첫가 1박2일 교육
19~20일	괴산	교육	40	서울귀농귀촌 희망자 교육
21일	괴산	교육	25	에코다임 유기자체만들기
22일	괴산	교육	40	음성 농기센터 유기자체만들기
23일	괴산	교육	10	농촌지도자회 수도작 토양관리
25일	서울	집회	2500	KBS유기농 편파보도 항의
26일	서울	행사	50	광진구 옥성텃밭 옥수수 나눔 축제
29일	괴산	교육	15	괴산군유기농업리더 양성교육
30일	괴산	행사	140	서울친환경급식센터 소비자 체험

### ■ 7월 회원 가입자 명단

박안필 (음성), 조광운 (대전), 육종식 (구미)

### ■ 알림

홍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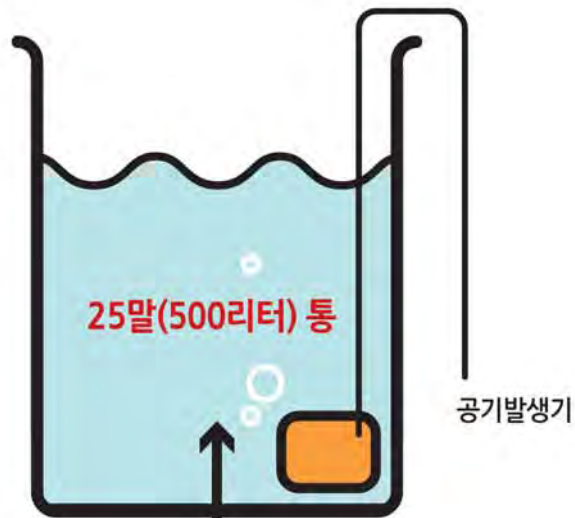
문의 : (사)홍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

처 : 농협 323-01-059315. 사단법인 홍살림연구소.

### ■ 홍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명임, 박태성, 곽호석,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김갑태, 김경인, 김계향, 김광남, 김광부, 김난영, 김남운, 김동숙,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균, 김상수, 김생수, 김신유, 김연철, 김영권, 김영철, 김원성, 김윤록, 김이진, 김인훈, 김정근, 김정순, 김창호, 김창환, 김홍희, 김행숙, 김현주, 나기창, 남기운, 도봉숲속마을, 도명수, 라병현, 라양채, 류훈희, 문상기, 민병용, 민성기, 민인기, 박규건, 박기선, 박기환, 박동윤, 박래훈,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병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성남, 박승희, 박영숙, 박영범, 박의준, 박익순, 박정국, 박정목, 박종삼, 박종수, 박종화, 박준순, 박재동, 박재환, 박효은, 반명수, 방미진,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악, 서현주,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송기봉, 송승희, 송중훈, 송재중, 송지은, 신문규, 신문수, 신연관, 신치영, 신홍기, 심민보, 안정택, 양병근, 엄창근, 오과칠, 오두연, 오지은, 유승찬, 유우현, 윤국현, 윤미경, 윤성희, 이강욱, 이계수, 이규식, 이기종, 이도훈, 이명환, 이미선, 이민재, 이병두, 이셋별, 이석천, 이성원, 이승훈, 이양희, 이원희, 이우정, 이은미, 이일웅, 이재숙, 이재용, 이재환, 이재희, 이정필, 이정호, 이종국, 이준규, 이진태, 이태근, 이필규, 이항순, 임승익, 임원택, 장동철, 장명숙, 장명순, 장정수, 전광석, 전희수, 정광영, 정구홍, 정규원, 정기인, 정기환, 정영순, 정석조, 정인숙, 정창환, 정정천, 조기진, 조보남, 조정신, 조중기, 조진성, 조희주, 주영직, 주윤식, 천호균, 최관호, 최광욱, 최금열, 최서연, 최연숙, 최유라, 최인철, 최춘식, 편용길, 하재우, 한인성, 함선녀, 함종식, 허병문, 허성오, 허현욱, 홍승면, 홍정욱, 홍종윤, 황정연, 황정희.

○ **흡사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  
**자가액비 제조세트** ○



<p><b>활인산 10L</b></p> <p>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사-4-1-119</p> 	<p><b>빛모음 10L</b></p> <p>뿌리보호, 활착, 세근발달 공사-4-1-26</p> 	<p><b>생선아미노산 10L</b></p> <p>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사-1-1-21</p> 	<p><b>바이오숨 10L</b></p> <p>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사-3-1-4</p> 	<p><b>해초 250gx2병</b></p> <p>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사-4-1-24</p> 
<p><b>당밀 10L</b></p> <p>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p>				